

의안번호	제358호
의 결 연 월 일	2012년 6월 일 (제311회)

충북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촉구 건의문

제 안 자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제안연월일	2012년 6월 일

# 충북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촉구 건의문

의안 번호	358
----------	-----

제안연월일 : 2012년 6월 일

제 안 자 :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 제안 이유

- 우리도는 지난 2007년 부터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착실히 준비하였음에도 정부는 지난 6월 5일 '경제자유구역 추가 후보지' 선정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일정조차 밝히지 않았음.
- 이는 159만 충북도민이 그동안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땀흘린 노력을 우롱한 처사로 도민 모두는 큰 안타까움과 좌절감을 겪고 있음.
-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을 대표하여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차질없이 그리고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고자 함.

붙임 : 건의안

보낼곳 : 청와대,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장관,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민주통합당 대표

## 충북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촉구 건의문

존경하는 이명박 대통령님

김황식 국무총리님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님

이해찬 민주통합당대표님 !

우리 충청북도는 국가 미래전략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서, 세계와 당당히 경쟁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착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5일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추가 후보지' 선정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일정조차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난 6년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한 159만 충청도민의 노력을 우롱한 처사로 도민 모두는 큰 안타까움과 좌절감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충청북도는 새로운 도약을 눈 앞에 두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의 선봉이 될 세종시의 출범,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함께, BT, New-IT, 태양광 등 내륙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실현을 통해 도민 모두가 행복한 '새로운 중부권 시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지정에 대해 미온적 태도와 말 바꾸기식 정책으로 우리 충청도민은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159만 충청도민을 대표하여 이명박 대통령님과 관련 부처에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차질없이 그리고 조속히 지정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과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6월 중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즉각 개최하여 '추가 지정 후보지'를 선정하라!

하나, 2010년 2월 이명박 대통령께서 우리도 방문시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

**2012년 6월 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